

+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Field Report

생방송 EBS 대수능 분석본부

2011학년도 수능의 정확한 분석과 빠른 전달

지난 11월 18일(목)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전국 82개 시험지구, 120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이에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EBS는 2011학년도 수능의 영역별 문제난이도와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을 분석하여 빠르게 보도했다. EBS 매봉사옥(3층 대회의실)에서는 영역별로 시험이 끝날 때마다 빠르고 정확한 분석이 이뤄졌으며, 우면동 스튜디오에서는 '생방송 EBS 대수능 분석본부' 방송준비가 한참이었다.

저녁 6시 5분 전국의 모든 시험장에서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그 시간, 우면동 스튜디오의 스태프들은 손에 땀이 차고, 발이 빨라진다. 세트 뒤로 새로운 패널이 걸리고, 보드판에는 시험지를 붙였다 떼었다, 메인 카메라와 지미집 카메라는 촬영 시 특이사항을 조정한다. 한 칸에서는 사회자와 선생들의 카메라 리허설이 진행되는데 어느덧 생방송 10분 전. 정신없이 분주한 스튜디오로 연출이 내려온다.





지휘봉을 들고 선 연출이 멋진 시범으로 스튜디오의 어수선했음을 정리한다. “선생님들 잘 보세요. 시선은 지미집 카메라를 응시하시고, 이렇게 지휘봉을 들고 문제들을 짚욱 설명하세요. 생방송이라 끊어짐이 없어요. 여기 여러 감독님들 믿고, 다 잘해주니까 편하게 문제의 정보전달에만 전념하면 돼요.” 빠른 시범과 편안한 웃음으로 스튜디오의 상황은 정리되고, 7시 5분 생방송 EBS 대수능 분석본부가 시작됐다. 이번 생방송에서는 그동안 EBS를 통해 주요 과목을 강의해 왔던 윤혜정(언어), 심주석(수리), 윤연주(외국어) 선생이 출연해, 언어·수리·외국어 영역별로 30분간 문항별 정답을 알아보고 해설을 해주었다.

이번 수능은 EBS 수능 교재와의 연계율을 70%대까지 높였음에도 까다로운 문제가 많아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분석이었다. 연계율은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까다롭게 비틀어서 출제된 문제가 많아서 수험생들은 영역별로 만만한 구석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수능은 이미 끝났고, 수험생들은 수능이후의 더욱 중요한 시기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수능성적이 통지되는 12월 8일까지 지원하고자하는 대학의 전형요소와 입시요강 등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성적이 나온 뒤 효율적인 지원전략으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